

내 발에 등, 내 길에 빛 May 15

• 시편 119:99-108

성경 묵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임의로 펴서 원하는 답을 얻으려는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주셔도 들을 귀 있는 자만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반응합니다(마 11:20; 히 11:6).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시 119:105). 성경 말씀은 ‘발에 등’이지 헤드라이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걸어갈 만큼만 보여 주십니다. 말씀이 유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유한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 걸음과 보폭을 조정해 주십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instruct) 너를 주목(with mine eye)하여 훈계(guide)하리로다”(시 32:8, KJV). 하나님이 시작에서부터 과정과 나중까지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만큼 걸어가십시오.

성경 묵상에는 몇 가지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묵상을 통해 다양한 말씀을 주시지만, 비윤리적인 길, 거룩하지 않은 방법은 결코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사 14:24).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됩니다. 순종 혹은 불순종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요 8:47).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요 10:27).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까?

- 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만큼 순종하고 있습니까?
- ②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과 훈계를 받고 있습니까?